

## 라인홀드 니버의 인간론을 통한 실현가능한 정의\*

최경석 (남서울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경제권력의 약화

### III. 실현가능한 정의

1. 무질서-죄인된 인간과 그 사회
2. 무질서의 원인-유럽문화
3. 유럽의 경제적 무질서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무능
4. 유럽의 정치적 무질서에 대한 비판

###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7.39.07>

\* 이 논문은 2016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2016년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 ABSTRACT •

---

A Study on the Realizable Possibility of Justice: Focusing on the  
Anthropology of Reinhold Niebuhr

Choi, Kyung Suk(Namseoul University)

Reinhold Niebuhr set the direction of social ethics in the ecumenical movement by participating actively in this movement. He criticized economic power, because wealth and power are concentrated in one place through economic activities. The object of this criticism was communism and libertarianism. He tried to find a solution that was close to approximation instead of suggesting a specific scheme. To this end, the democratic society should strive for constant debate and new development of property issues, since democracy is a way to find second best solutions to unresolvable problems. The basis of all this is his anthropology, that is, the ability to achieve justice and a tendency to commit injustice

**Key words:** Reinhold Niebuhr, Anthropology, Realization of Justice, Ecumenical Movement, Communism and Libertarianism

---

## I. 들어가는 말

갈등은 생활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관계들 중 하나다. 생활사회에서 갈등의 심화로 일어나는 현상들 중 하나는 전쟁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끔직한 전쟁으로 간주되었고 인류사회에 많은 것들을 시사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리고 그 후,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악을 통해 심화되는 전쟁과 같은 무질서를 극복하는 과제와 무질서를 제거하든지 또는 억제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제를 직면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는 일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내부에까지 확산되었다. 당시 에큐메니칼 운동은 인류사회를 무질서로 몰고 간 요소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다. 그 하나는 권력의 집중화였다. 자본주의 내부에서 경제를 통해 자본을 장악한 자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으며, 공산주의 내부에서 정치를 통해 자본을 장악한 자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

다른 하나는 기술의 발전이었다. 기술의 진보와 발전은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구조로 상황을 변경해 버렸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인간사회를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전쟁의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함으로써 일어나는 인간노동의 소외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인간으로 하여금 거대한 산업도시를 형성케 했으며, 여기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문제들은 무질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sup>1)</sup>

라인홀드 니버(R. Niebuhr)는 이 시기에 에큐메니칼 운동에 주도적으

---

1) Bericht der Sektion III, in: W. A. Visser't Hooft (Hg.), *Die Unordnung der Welt und Gottes Heilsplan Bd. 5*, Die erste Vollversammlung des Oekumenischen Rates der Kirche, (Genf: 1948), 96.

로 참여했다. 그는 에큐메니칼 운동 내에서 사회윤리적 사고방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설정했다.<sup>2)</sup> 특히 니버는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당시 경제제도를 분석했고, 경제활동을 통해 부와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화된 현상을 비판했다. 이런 비판 대상의 대부분은 공산주의였다. 아울러 당 무질서한 세계질서와 그 원인을 제공한 유럽국가들이 니버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었다.

본 논문은 니버에게서 실현가능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니버의 저작인 “빛의 자식들과 어둠의 자식들”과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발표한 니버의 글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니버에게서 실현가능한 정의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며(II장),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발표한 글에서 세계공동체의 구상이 언급될 것이다.(III장)

## II. 경제권력의 약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사회의 질서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이 요구되었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에큐메니칼 운동은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염두해 두면서 경제질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몰두했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사이의 선택은 대표적 논쟁이었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일 때,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계의 경제질서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필요함을 직시했다.

2) 실제로 니버의 인간론은 에큐메니칼 문서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의 제3분과의 보고서에서 니버의 인간론을 볼 수 있다: “무질서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어떠한 세속적 공동체에 대한 충성이나 어떠한 세속적 힘에 대한 복종 위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데 있다. 종교적 전통과 가정생활이 쇠약해지고 또 외관상 보기에 대부분 세속화된 우리의 현대사회는 인간본성 속의 악의 깊이와 하나님 자녀의 완전한 정도의 자유와 위엄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위의 글, 95.

주지하듯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들 중 하나는 당시 세계의 경제관계였다. 당시 세계 열강들은 경제공황으로 인한 경기침체, 이를 통해 발생한 대량실업 문제들을 전쟁으로 풀어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때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한다는 주장들이 부각되고 있었다.<sup>3)</sup> 1948년 제1차 세계교회협회가 시작되기 전 에큐메니칼 운동은 경제질서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논의들을 진행했다.

니버는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통해서 당시 에큐메니칼 운동이 나아가야 할 경제질서를 언급했다. 니버는 국가나 중앙정부의 관리에 의한 계획된 경제의 형태를 거부했다. 1937년 옥스퍼드 제2차 “생활과 노동(Life and Work)” 세계대회가 “극단적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의 경제체제”<sup>4)</sup>를 명확히 거부한 경제질서에 대한 입장을 니버는 옹호했다.

니버는 민주주의를 옹호했고 그에 걸 맞는 경제질서를 선호했다. 니버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달랐다. 니버가 추구하는 정치와 경제 모델은 민주주의였다. 그는 당시 경제질서의 두 가지 조류였던 자유방임주의와 공산주의를 비판했고 민주주의의 우위와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서론에 잘 나타났다. 니버의 말을 들어본다면, “이 책(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근본주제는 나의 신념, 즉 민주주의는 현대사에서 흔히 민주주의와 결부되는 자유주의문화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정당화의 근거를 갖고 있고 보다 현실주의적인 옹호가 필요하다는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sup>5)</sup>

3) T. Jähnichen, *Vom Industrietertan zum Industriebürger*, (Bochum: 1992), 361.

4) 최경석,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19집, (2010), 226.

5) R. Niebuhr, *Die Kinder des Lichts und die Kinder der Finsternis*, Eine Rechtfertigung der Demokratie und eine Kritik ihrer herkömmlichen Verteilung, (München: 1947), 7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니버의 경향에 따라서, 자유방임주의와 공산주의, 이 두 경제질서는 니버의 비판의 대상이었다. 니버에 따르면 두 경제질서는 “인간의 본성을 낙관적으로 평가한다.”<sup>6)</sup> 그러나 기독교적 인간의 본성, 특히 니버가 주장하는 인간의 본성은 비판적인 “죄인”이다. 뿐만 아니라, 니버는 이 두 경제질서를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위협의 요소”<sup>7)</sup>라고 주장했다.

자유방임주의자들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공공복리가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니버의 인간론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기에 자유방임주의자들의 말처럼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sup>8)</sup> 왜냐하면 자유방임주의에서 개인의 이해관계는 재산을 모으는 이기심으로 집중되며 이를 통해서 경제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획득한 경제권력이 사용되거나 남용될 경우, 공공복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현혹되어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은 사라지고 독점이 형성되어 정치와 경제생활을 지배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sup>9)</sup>

시각을 공산주의의 입장으로 돌려서 바라볼 때, 그들은 사유재산의 사회화와 혁명을 통해서 경제력의 불균형이 사라짐으로써 권력의 균형이 조화롭게 이루어 질 것으로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의 사회화가 인간의 이기주의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낙관론적

6) 위의 책.

7) 위의 책.

8) 니버는 자유방임주의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부르주아정신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재산의 ‘표상’의 개인적 성격과 이런 표상들이 지시하는 진정한 부의 사회적 성격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데서 생긴 환상들이다.”, 위의 책, 70.

9) “부르주아적 개인주의와 재산의 사회적 기능간의 가장 두드러진 모순은 상업문명이 점차, 집단적 생산을 일차적인 부의 원천으로 하는 산업문명으로 전환되면서 명확히 드러난다. ... 기계로 대변되는 부와 기계가 만들어내는 부는 둘 다 복잡한 상호기여를 통해 생겨났다. 그 같은 과정의 ‘사적’ 소유권은 시대착오적이고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 같은 중앙집권화된 권력에 대한 개인적 통제는 불의를 초래한다.”, 위의 책, 71.

사고도 니버의 인간론을 토대로 본다면 비판의 대상이다. 이런 낙관론적 태도는 인간의 죄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방임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경제질서를 낙관적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니버는 인간은 부정적 죄인이기에 그 어떤 사회구조도 정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그의 신학적 인간론<sup>10)</sup>의 바탕에서 두 경제질서들을 수미일관 비판한다.

니버의 신학적 인간론 즉,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불의를 저지르려는 경향”<sup>11)</sup>이라는 인간론을 토대로 볼 때, 재산의 유무에 연관된 경제권력들은 효과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니버는 자유방임주의와 공산주의에서 나타난 재산과 권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니버에 따르면, 자유방임주의자들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되어 오류를 범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사회화된 재산과 관련되어 오류를 범했다. 이 둘은 “재산이 개인적 형태이든 사회적 형태이든 간에 공공의 이해관계에 해로움을 주는 특수한 이해관계의 기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권력”<sup>12)</sup>이란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니버는 자유방임주의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개인의 경제권력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공산주의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지나친 간섭도 막아야 했다. 왜냐하면 지나친 국가의

---

10) 고재식은 니버의 신학적 인간론의 특징을 “역설적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재식, 『기독교 윤리의 유형론적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71. 고재식은 헤리 데이비스(Harry R. Davis)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니버의 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역설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고재식은 이런 “역설적”인 특징을 다섯 가지로 규정한다. 1) “초월성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세력들을 부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신 신.”, 2) “자유로우면서도 제약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무한한 인간”, 3) “죄는 불가피한(inevitable) 것이지만 필연적인(necessary) 것은 아니다.” 4)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자유롭다.” 5) 사랑은 불가능의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이다.” 위의 책, 70에서 재인용.

11) R. Niebhur, *Die Kinder des Lichts und die Kinder der Finsternis*, 8.

12) 위의 책, 73.

간섭과 조정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소유한 권력이 민주주의적으로 조정”<sup>13)</sup>되는데 니버는 관심을 집중했다.

니버의 관심사는 탈중앙화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경제권력을 균등히 분배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경제권력도 적정수준일 때는 방어적 힘이 되지만, 지나칠 때는 불의의 수단이 될 것”<sup>14)</sup>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특정한 경제 분야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니버는 간주했다. 이런 의미에서 니버는 민주사회의 과제를 “기술과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파괴하지 않고 집중된 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길을 찾는 것”<sup>15)</sup>이라고 말했다.

“권력들 간의 균형을 보다 잘 유지하기 위해서”<sup>16)</sup> 니버는 아주 조심스럽게 과도한 경제권력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효율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을 옹호했다. 물론 니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재산의 문제는 민주적 과정의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하는 것”<sup>17)</sup>이었다. 니버는 그 어떤 구체적인 제도의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니버는 경제권력이 중앙으로 집중화되는 것을 철저히 반대했다.

오히려 니버는 구체적인 제도를 제시하는 것을 대신해서 “근사치에 가까운 해결책”<sup>18)</sup>을 찾으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 민주사회가 노력할 점은 재산문제에 대한 지속적 토론과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차선의 해결책들을 찾아

---

13) 위의 책, 77.

14) 같은 쪽.

15) 위의 책, 78.

16) 같은 쪽.

17) 같은 쪽.

18) 위의 책, 79.

내는 방법”<sup>19)</sup>이기 때문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현가능한 정의를 위해서는 국가 공동체를 넘어 서서 세계적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함을 니버는 피력했다. 우선 강대국들의 힘은 세계질서를 확보함에 있어 용이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모종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 반면에 강대국들이 자신의 권위를 독점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덕적, 법률적 견제들을 수립하고 제안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제도들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III. 실현가능한 정의

위에서 니버는 당시 정치와 경제질서를 비판하면서 실현가능한 정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니버는 여러 갈래로 흐르고 있고 활동했던 당시 에큐메니칼 운동이 하나로 통합되어 등장한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실현가능한 정의의 표상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는 1948년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경륜”이란 주제 하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었다.

니버는 암스테르담 회의의 제3분과에서 이 사회에서 실현가능한 정의의 표상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미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방임주의의 경제이론을 통해서 획득한 경제권력을 비판하고 동시에 공산주의나 과시즘과 같은 전체주의의 경제이론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자들을 비판했다.

특히 제3분과는 “교회와 사회의 무질서”라는 큰 틀에서 당시 경제적 문제를 직시했다. 니버는 “하나님의 질서와 오늘날 문화의 무질서”<sup>20)</sup>라는

19) 위의 책, 80.

20) R. Niebuhr, “Gottes Ordnung und die Unordnung der heutigen Kultur,” in: W. A. Visser’t Hooft (Hg.), *Amsterdamer Ökumenisches Gespräche, Bd. III, Die Kirche und die Auflösung der gesellschaftlichen Ordnung*, (Genf: 1948)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가 시작되기 전 세계 경제질서에 대한 논의는 “정의”와 “자유” 또는 “계획된” 경제제도와 “자유로운” 경제제도 사이에서의 선택이었다. 제3분과는 이 선택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에 대해서 니버는 “현대 기술사회의 아주 복잡한 사회적 관계들 아래에서 자유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유가 유지되면서 어떻게 정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명쾌한 원칙들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 우리는 단지 자유를 포기하면서 안전을 유지하는 것과 현대의 산업화된 사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안전을 포기하면서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해결책도 주지 못하고 있다.”<sup>21)</sup>고 말했다.

암스테르담 회의가 채택한 경제제도적 측면의 언명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공산주의의 이념은 경제적 정의를 강조한다. 그리고 자유는 혁명이 완성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나타난다고 약속한다. 자본주의는 자유를 강조한다. 그리고 정의는 자유로운 경제서 완전히 스스로 나타난다고 약속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이념이다. 정의와 자유 사이 쌍방 간 분열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적 해결책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속한다.”<sup>22)</sup>

니버는 제3분과에서 발표한 “하나님의 질서와 오늘날 문화의 무질서”를 중심으로 니버가 가진 견해들을 추적해보자. 이 글은 7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데, 그 중 몇 군데를 취사선택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21) 위의 글, 23.

22) Bericht der Sektion III, in: W. A. Visser't Hooft (Hg.), *Die Unordnung der Welt und Gottes Heilsplan Bd. 5*, Die erste Vollversammlung des Oekumenischen Rates der Kirche, (Genf: 1948), 104.

## 1. 무질서-죄인된 인간과 그 사회

니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무질서의 원인을 서구사회 문화로 보았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깊은 상처”<sup>23)</sup>를 남겼다. 이 모든 무질서는 서구사회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었다. 이 혼란의 핵심의 원인은 세계 공동체가 연대하는 사회와 삶을 만들거나 또는 건설할 인력의 부족이었다. 게다가 국가는 무능력하여 이를 후원하지 못했다. 또한 기술은 발전했으나 시민사회에서 정의를 다시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했다. 니버는 이를 무질서라고 묘사했다.

이런 인간의 무질서와 사회의 무질서가 지배하고 부정의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질서의 형태들의 근본”<sup>24)</sup>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직시해야했다. 니버에 따르면 죄로 가득찬 사회제도와 정치제도가 무질서의 원인들이었다.

니버는 자신의 글에서 즐겨 사용한 “오늘날 우리들의 위기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의미(die christliche Deutung unserer gegenwärtigen Not)”<sup>25)</sup>를 통해서 무엇이 당시의 무질서인지를 설명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당시의 위기를 세속주의로 보고있다. 물론 니버도 세속주의의 해악이 세상의 무질서임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세속주의가 당시의 세상의 위기와 무질서를 몰고 온 것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반대했다.

오히려 니버는 그리스도교가 꿈꾸는 이상적 사고방식 위에서 건설될 수 있는 법들과 제도들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른바 “세상의 믿음(Weltgläubigkeit)”<sup>26)</sup>을 창출하려는 것이 커다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23) R. Niebuhr, “Gottes Ordnung und die Unordnung der heutigen Kultur,” 11.

24) 같은 쪽.

25) 이 문장은 당시 무질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서두 부분의 핵심 문장이기도 하다.

26) 위의 글, 13.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는 ... 그 어떤 특정한 사회기관들의 형태로 동일시 될 수 없기”<sup>27)</sup> 때문이었다. 게다가 사회 기관들 자체가 죄인된 인간에게서 형성된 것이며 그 특징은 강제성이기 때문이었다.

## 2. 무질서의 원인-유럽문화

이런 인간론에 근거해서 인간의 생활사회에서 공동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할 정의의 표상을 세우는 것이 니버에게 있어서 중요했다. 이런 의미에서 죄인된 인간의 조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조망될 수 있는 “다양한 정의의 제도들”에 대한 구상들이 필요하다고 니버는 말한다: “사랑의 계명을 인간 사회의 모든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의 하모니가 죄인된 인간의 조건 속에서 삶과 밀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의의 제도들이 제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구조들과 제도들은 상대적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 죄를 감추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구조 속에서 이기적인 요소와 죄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8)</sup>

니버는 세계질서의 혼란의 원인을 유럽문화로 보고 있다. 산업화가 시작된 곳이 유럽이며 자유주의가 시작된 곳이 유럽이었다. 기술력의 발달과 진보를 통해서 새로운 자유방임적 경제질서가 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금권경제의 문화”<sup>29)</sup>가 만연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니버는 당시의 세계 경제의 무질서를 기술의 진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이를 문화의 퇴보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제국주의의 발전에 이르렀고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에 부정

27) 같은 쪽.

28) 위의 글, 14.

29) 위의 글, 15.

의를 초래했다. 제국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종차별까지 이어졌다. 그리스도교도 이와 조응하여 새로운 선교지역의 확장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sup>30)</sup> 이 모든 것들은 유럽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유럽문화가 세계혼란의 원인이었다. 게다가 유럽을 중심으로 산업화된 국가들은 새로운 경제권력들이 등장했는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그것이었다.<sup>31)</sup>

유럽 사회에서의 기술사회의 발전은 결국 국민경제에도 관여하여 각 국가들에서 나타난 공동체의 전통과 기관들을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기술의 진보가 개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확산시켜 새로운 근대의 산업사회를 이룩하는 데 이바지했고 인간들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로부터 파생된 불공정과 부정의는 정의를 만들 능력을 무마시켜버렸고 인간 삶의 기본적 안정장치를 만드는 것마저 무마시켰다.<sup>32)</sup> 니버는 건강한 국가의 예시로 노동자 계층과 시민 계층의 투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미국을 예로 들고 있다.<sup>33)</sup>

### 3. 유럽의 경제적 무질서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무능

니버는 당시 자유방임주의 경제를 비판했다. 당시 경제, 정치는 자유방임주의에 터를 잡고 있었으며 권력의 집중은 날로 커져가며 그로 인해 부정의가 전 세계에 팽만해졌기 때문이었다. 이런 자유방임주의는 도덕의 상실을 불러왔다. 유럽의 가톨릭과 개신교도 유럽에 만연한 도덕적 상실에 대한 니버의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

30) 니버는 그리스도교의 선교정책에 대해서도 “선교는 그리스도교의 확장에 영향을 주었으며 동시에 제국주의의 지배에 대한 갈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의 글, 16.

31) 위의 글, 16.

32) 같은 쪽.

33) 위의 글, 17.

니버는 가톨릭 교회가 봉건 귀족과 같은 보수주의의 결집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권력들에 배치되었고 맑스주의에 입각한 노동운동들에게 맞섰다고 비판한다.<sup>34)</sup> 아울러 가톨릭의 도덕과 정치적 이론은 현대 산업사회의 얽히고설킨 복잡한 관계를 풀 실마리를 제공하기에 부족하다고 니버는 비판했다.<sup>35)</sup>

개신교 특히, 루터교회도 니버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니버는 루터교회를 “비정치적”<sup>36)</sup>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인의 책무가 될 수 있는 정치적 투쟁”<sup>37)</sup>에는 관심이 없다고 니버는 일갈했다. 또한 칼뱅교회도 맥락을 같이해서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갈망에 반대하여 무비판적인 개인주의를 지지할”<sup>38)</sup> 위협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니버는 비판했다. 사정이 이렇기에 이 두 교회들은 권력이 정치권과 경제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전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없었다.<sup>39)</sup>

#### 4. 유럽의 정치적 무질서에 대한 비판

세계의 무질서의 원인들 중 하나는 바로 정치체계였다. 유럽에서 나타난 파시즘과 맑스주의가 바로 그것이었다. 맑스주의는 게다가 종교를 부정하며 그들이 주창하는 사회적 정의도 하나의 몽상에 불과할 뿐이었다. 니버는 맑스주의에서 말하는 사회적 정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재산의 사회화를 모든 사회적 질병을 위한 치료제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

34) 위의 글, 18.

35) 같은 쪽.

36) 위의 글, 19.

37) 같은 쪽.

38) 위의 글, 20.

39) 위의 글, 21.

된 것이다.”<sup>40)</sup>

물론 엄격히 말하면, 니버는 유럽의 사회주의보다는 공산주의를 비판했다. 오히려 맑스주의가 가난한 나라에게 연대할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정의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근원이 맑스주의임을 상기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는 맑스주의와 굳이 배치할 필요는 없다고 니버는 보고 있다.

니버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건강한 국가체제를 고려하면서 전체주의, 파시즘 그리고 공산주의를 철저히 거부했다. 니버는 맑스주의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국가를 이른바 “건강한 국가”로 지칭하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영국 그리고 특히 미국을 언급했다.<sup>41)</sup> 특히 미국의 경우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면서도 사회주의 운동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니버는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국제적 충돌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건강한 관계”<sup>42)</sup>를 강조했다. 그 관계 속에서 “정의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국제적 삶에서 새롭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기를”<sup>43)</sup> 기대했다.

니버가 암스테르담 제3분에서 발표한 글을 요약하자면, 니버는 실현가능한 정의를 주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니버의 말을 직접 들어본다면, “우리의 지금의 현장에서 한편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 공동체성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데 투쟁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실현가능한 평화와 정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한 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노력에서도 타락한 죄가 발견됨을 알아야 합니다.”<sup>44)</sup>

---

40) 위의 글, 22.

41) 위의 글, 22-23.

42) 위의 글, 24.

43) 같은 쪽.

44) 위의 글, 27.

이 표현에서 정의의 실현도 니버의 인간론에서 시작됨을 발견할 수 있다.

#### IV. 나가는 말

위에서 언급한 글들을 통해서 니버의 비판 대상은 당시 무질서의 원인 제공자였던 유럽 문화였다. 유럽에서 파생된 자유방임주의와 공산주의가 그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유럽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니버는 주장한다. 니버는 유럽에서의 경제상황이 맑스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sup>45)</sup> 미국은 미국 대륙의 자연에서 나오는 경제력과 미국인들 사이의 경쟁력에서 부를 축적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의 경우 맑스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노동운동이 커다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1954년 미국 에반스톤(Evanston)에서 열린 제2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 니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이란 짧은 글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그가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발표한 글과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여전히 서유럽의 사회의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위협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다.<sup>46)</sup>

45) R. Niebuhr, “Die Lage in den Vereinigten Staaten,” in: W. A. Visser’t Hooft (Hg.), *Amsterdamer Ökumenisches Gespräche, Bd. III, Die Kirche und die Auflösung der gesellschaftlichen Ordnung*, (Genf: 1948), 96.

46) R. Niebuhr, “Unsere Abhängigkeit von Gott,” in: F. Lüpsen (Hg.), *Evanston Dokumente, Berichte und Reden auf der Weltkirchenkonferenz in Evanston 1954*, (Witten: 1954), 319.

## 참고문헌

- 고재식. 『기독교 윤리의 유형론적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최경석.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19집 (2010), 205-235.
- T. Jähnichen, *Vom Industrieuntertan zum Industriebürger*, Bochum: 1992.
- R. Niebuhr, *Die Kinder des Lichts und die Kinder der Finsternis, Eine Rechtfertigung der Demokratie und eine Kritik ihrer herkömmlichen Verteilung*, München: 1947.
- \_\_\_\_\_. “Gottes Ordnung und die Unordnung der heutigen Kultur,” in: W. A. Visser't Hooft (Hg.), *Amsterdamer Ökumenisches Gespräche*, Bd. III, Die Kirche und die Auflösung der gesellschaftlichen Ordnung, Genf: 1948.
- \_\_\_\_\_. “Die Lage in den Vereinigten Staaten, in: W. A. Visser't Hooft (Hg.), *Amsterdamer Ökumenisches Gespräche*, Bd. III, Die Kirche und die Auflösung der gesellschaftlichen Ordnung, Genf: 1948.
- \_\_\_\_\_. “Unsere Abhängigkeit von Gott,” in: F. Lüpsen (Hg.), *Evanston Dokumente, Berichte und Reden auf der Weltkirchenkonferenz in Evanston 1954*, Witten: 1954.
- W. A. Visser't Hooft (Hg.), *Die Unordnung der Welt und Gottes Heilsplan* Bd. 5, Die erste Vollversammlung des Oekumenischen Rates der Kirche, Genf: 1948.

논문투고일: 2017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17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03일

---

 • 국 문 초 록 •
 

---

라인홀드 니버(R. Niebuhr)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에큐메니칼 운동의 사회윤리적 측면을 강화시킨 인물이다. 니버는 경제질서를 심사숙고하면서 경제활동을 통해 부와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화된 현상을 비판했다. 이 비판의 대상의 대부분은 공산주의였다. 또한 니버의 주된 비판의 대상은 당시 세계의 무질서였으며 그 원인 제공자는 바로 유럽국가들이었다. 니버는 구체적인 제도를 제시하는 것을 대신해서 근사치에 가까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 민주사회가 노력할 점은 재산문제에 대한 지속적 토론과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차선의 해결책들을 찾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무질서한 당시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정의가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할 것인지를 니버는 당시의 경제질서와 더불어 고민하였다. 이와 맞물려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발표한 글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성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주장한다. 니버의 이런 주장들의 모든 근거는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불의를 저지르려는 경향을 가진 그의 인간론이었다.

**주제어:** 라인홀드 니버, 실현가능한 정의, 인간론, 에큐메니칼 운동, 공산주의와 자유방임주의

---